

독도소식지 9호를 내면서

독도소식지 8호 늦게 내고 9호를 두 달 반 만에 내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독도소식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은 독도의 주인입니다. 주인이 지켜야합니다. 독도 수호 운동에 참여하세요. 여러분이 독도에 관심을 가지면 독도는 지켜집니다. <편집자>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 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 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내·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4. 독도를지킨독도의용수비대를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위 내용을 서명운동을 하는 중이다. 서명을 많이 하면 여론이 되고 여론이 되면 정부가 한다. 여론을 따르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위하여 한다.

위 내용은 1번 독도연구 많이 하면 논리적으로 일본을 이긴다. 2번은 사람이 많이 살면 재판을 해도 이긴다. 3번 관광지로 개발하면 독도에 사는 사람이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먹고 살게 된다. 4번 독도의용수비대가 없었으면 그 당시에 독도는 일본 땅이 되었을 거다. 그들을 대우 잘 해야 한다. 5번 어업협정은 바다를 일본에 준거다. 바다를 찾기 위하여 어업협정 파기해야 한다.

온 국민이 독도사수연합회가 하는 서명운동을 하게 되면 독도는 지켜진다. 국민들이 독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독도는 일본 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독도는 행동을 해야 한다.<편집자>

독도 옆 푸른 부분은 일본과 공동수역(절반의 주권)

울릉도와 오키도 중간에 해양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 독도를 포함해서 중간수역(일본은공동수역이라함)이 되었다. 독도 주변 수역을 우리 마을대로 못한다. 독도의 주권이 일부 넘어간 것이다. 우리는 방심 말고 독도와 영유권을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독도연구와 자유입도 주거자유하고 해양경계를 확실하게 두어야 한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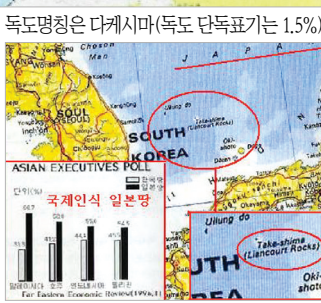
15조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계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협정은 일본의 다케시마 주장을 배제하지 않음
일본은 이 협정을 일본영유권주장 근거로 삼을수 있게 됨

붉은 글은 설명 글입니다 독도 이상훈 http://dokdomk.com 010-6504-6510

독도주변(12에리외)일본이 조업해도 우리경찰 단속 못한다. 붉은선 안에 우리만 조업 해야한다 심한일 협정은 오키도 바다를 절반 빼앗긴 것이다.

위 그림은 독도 주변 바다가 공동수역이 된 것이며 우측 그림은 독도를 다른 나라 지도 다케시마 표시하며 독도는 1.5%만 표시 된다. 지도상 일본 땅이다



日 관료·의원 대거동원 “독도 일본땅”집회(종합)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04-11 16:18

우익의원 “독도침략 한국에 자위권 발동”선동

외무차관·총리 측근·의원 50여 명 참석...정권 개입 노골화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정치권 인사가 참석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집회가 11일 도쿄 한복판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처음으로 정부 관계자와 총리 측근이 참석했고, 국회의원들이 대거 출석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에 대한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을 노골화했다. 일부 우익 의원은 “독도를 무력 침략했다”며 한국에 자위권 발동을 거론했고, 독도를 되찾기 위해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망언도 나왔다.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식 명칭)·북방영토 반환 요구 운동 시마네 현민회의’는 이날 오후 도쿄 시내 헌정기념관에서 ‘다케시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도쿄 집회’를 열었다. 시마네 현민회의는 시마네현 의회가 주도하는 단체이고, 스하마 시게타쓰(洲浜繁達) 시마네현 의회 의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이 집회는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회장 야마타니 에리코 자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도쿄에서 이런 집회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이날 집회에는 시마네현과 정치권, 정부, 보수단체 등에서 약 800명이 참석했다. 헌정기념관은 도쿄의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다. 정부 인사로는 야마구치 쓰요시(山口壯) 부대신(차관)과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보좌관이 참석해 집회에 힘을 실었다. 정부 관료와 총리 측근이 독도 영유권 주장 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은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을 맡고 있는 이치카와 야스오(一川保夫) 전 방위상과 사회민주당 야마우치 도쿠신(山内徳信) 국민운동국장 등 8명이 내빈 자격으로 인사를 했고, 별도로 여야 의원 50여 명이 직접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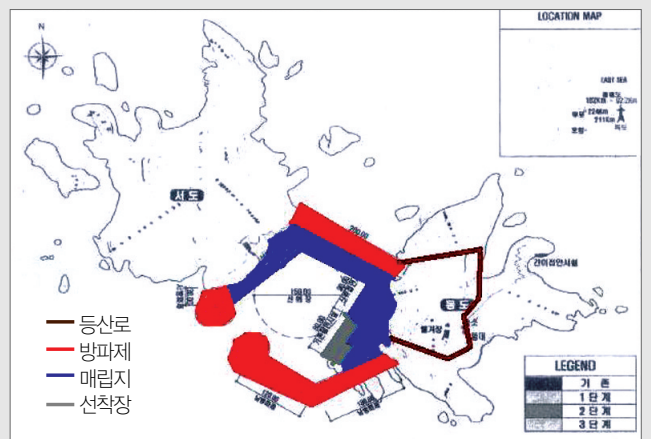
다함께 당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内文城) 정책조사회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이) 우리 영토를 무력으로 침략한 만큼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전쟁을 선동하는 발언을 했고,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 일어나라 일본당 대표도 “다케시마를 찾으려면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발언했다. 참석자들은 민주당 이치카와 전 방위상이 “한국이 일본의 인접국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만큼 일치단결 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을 때에는 야유를 퍼붓기도 했다. 미조구치 젠베(溝口善兵衛) 시마네현 지사는 “오늘 집회를 계기로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이 시마네현의 주장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담당 부서를 설치하고, 국민에게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마구치 부 대신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다”면서 “단숨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끈기 있게 해결해나가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행사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도 도쿄에서 집회가 열리면 참석할 것”이라며 “담당 부서 설치 요구 등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마네 현민회의는 2006년부터 해마다 2월 22일 시마네 현민회관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자 도쿄에서 집회를 열면서 관방장관과 외무상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외무성 부대신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측근 등 정부 인사가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석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반발도 한층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올 들어 고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등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왔으며, 이번 행사에 관료를 참석시킴으로써 향후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행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과 개입을 예고했다. <kimjh@yna.co.kr>

독도 개발 (안)

동도와 서도는 170m정도 거리가 된다. 붉은 곳은 방파제며 회색은 선착장이다. 푸른 부분은 매립을 해서 상업지나 주택지를 만들자는 개발(안)이다. 독도에 관광객이 체류 시간을 늘려서 독도 주민이 장사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독도가 개발되고 방파제가 생기면 울릉도 관광객이 연간 35만 명인데 독도 관광객 30만 명은 될 것이다. 독도에 20가구는 생계수단이 될 것이다.

※ 개발안은 강항희 회장의 것인데 독도 이상훈 수정한 것입니다.



독도 실효적지배를 한다. 정부가 일본을 의식해서 실효적지배를 강화한다는 인식은 안 보이는 것이 좋다. 정부는 자연스럽게 우리 땅이기에 개발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이 좋다. 일본을 의식해서 못 하는 것을 보이는 것도 안 된다. 민간단체는 실효지배를 강화 하자는 말을 해도 된다. 정부가 잘 못 하는 부분을 건의나 항의를 해도 된다. 독도 이상훈(편집자)

일본규탄행사 격려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땅 독도를 지키고자 쉼고 바쁘신 와중에 이 행사를 주관하고 뜻을 함께 하여주신 독도사수연합회 및 대한민국 상훈회, 도덕국민운동본부 회원 여러분과 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각 애국단체 및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바다 건너편 일본 놈들은 우리의 영토를 약탈하고 우리 민족을 저들의 속 국민으로 만들어 일제 26년간을 온갖 만행으로 우리를 괴롭혀 온 천하의 원수 놈들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하며 2005년 3월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소위 다케시마 날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해마다 기념행사를 하며 일본 국민의 여론을 환기 시키는 가운데 일본정부도 이를 방조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어 오늘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영토를 지키고자 이와 같이 독도사수결의 대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우리 땅 독도를 지키기 운동이 우리들만의 메아리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 일본 놈들은 국적을 독도로 옮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저들의 2세에게까지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음은 실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 정부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는 긴급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인 정부대책과 국제적 외교로 우리의 뜻을 관철하고 국민봉기의 지원을 확실하게 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 하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신 각급 단체 회원 여러분의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2월 22일

대한민국상훈회 도덕국민운동본부 회장 신옥균

독도 실효적지배를 한다. 정부가 일본을 의식해서 실효적지배를 강화 한다는 인식은 안 보이는 것이 좋다. 정부는 자연스럽게 우리 땅이기에 개발 하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이 좋다. 일본을 의식해서 못 하는 것을 보이는 것도 안 된다. 민간단체는 실효적지배를 강화 하자는 말을 해도 된다. 정부에 건의나 항의를 해도 된다. <편집자>

독도사수연합회 새 회원 명단



정시한(교본)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문원필(회원) 울산시 남구 삼산동
김경진(회원)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박충금(운영위원) 부산시 부산진구 범일동

대 회 사

다케시마 날 규탄 및 독도수호결의대회
2012. 2. 22(수) 14:00 정발장군 동상 앞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본의 자칭 ‘다케시마 날’ 제정에 대한 규탄 및 독도사수 결의대회를 하기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본은 우리 영토인 독도를 1905년에 지방 정부인 시마네현이 불법 편입을 하고, 2005년 1월 14일 시마네현 의원들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 2월 23일 의회에 상정해 3월 16일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시작하여 올해 7년째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망동이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런 일본의 망동은 그냥 간과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본의 안하무인(眼下無人)한 행동을 그냥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일본의 망동에 대한 규탄을 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차후에 국제 재판소에 가서 독도문제에 대한 재판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진술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영토 편입은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 편입한 것도 모자라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망동에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단호한 결의와 행동을 보일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다함께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데 앞장 서 싸웁시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다시는 일본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넘보지 못하도록 강하게 맞서 싸워 대한민국의 존엄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곧 독도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故 안용복 장군과 선조들의 영전에 뜻뜻한 길이며, 후세대에게 아름다운 우리땅 독도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독도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며 자유평화와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는 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 제국주의적 망상에 빠져있는 일본을 규탄하고 독도를 지켜냅시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22일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사무처장 박춘호

독도사수 결의문



우리는 우리의 영토 독도를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이 일본 영토라고 우기고, 극우파까지 가세하여 뺏으려 하는 것을 그냥 좌시 할 수 없으며, 후세에 아름다운 독도를 물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굳게 결의한다.

1. 우리는 우리 영토 독도를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1. 우리는 일본의 독도침탈 주장에 맞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결사 항쟁 할 것이다.
1. 우리는 독도 바로알리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독도문제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 해 나 갈 것이다.
1. 우리는 일본의 어떠한 독도 침략에 대해서도 대응할 자세를 갖추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2년 2월 22일

독도사수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산광역시지부
도덕성회복 부산본부 독도해병지킴이, 독도사랑문화회
독도연합총본부 일동

구호 제창

1. 일본은 자칭 ‘다케시마의 날’을 없애고, 행사를 전면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취소하라!)
2. 일본정부는 독도침략을 사죄하고, 한.일 평화를 위해 헌신하라!
(헌신하라! 헌신하라! 헌신하라!)
3. 독도는 한국 땅, 독도 침탈하는 일본을 막아내자!
(막아내자! 막아내자! 막아내자!)

(사진·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연제구 지회 사무국장 류경호)

일본자칭 “다케시마”날을 규탄하는 이유



일본이 우리 땅인 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고 1905년 2월 22일에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 편입했다고 2005년 1월 14일 시마네현 의원들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조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현 의회에 상정해 3월 16일 가결하고, 2006년부터 “다케시마”날 행사를 시작하여 올해 7년째 행사하는 것을 묵인 하지 않기 위하여 이 행사를 합니다. 시마네현은 작년까지 2월 한 달만 독도전시회 하던 것을 금년은 1월 18일 2월 말까지 전시회를 하며 이승만정권이 평화선을 만들어 일본어선 326척 억류된 일본인 3,904명 고통을 주었다고 선전을 합니다. 일본의 다수정치인들과 극우파들은 일본인들을 부추겨 독도를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일본의 주장을 묵인 하는 것이 되며 묵인은 차후에 혹 국제 법으로 한다면 더욱 불리해 지는 것입니다. 영토 편입은 지방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인 시마네현이 편입 한 것은 국제 법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은 언어도단 이라는 말입니다.

독도사수연합회 운영위원장 윤승태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가입 원서

성명	생년월일 :		
전화 (자택)	(직장)	(휴대폰)	
주소 (자택)	우편번호 :		
(직장)	우편번호 :		
직업(명)	소속단체 :		
E-mail			
참고 사항			
년납 ()	월납 ()	회비	자 동 : 이체 ()
자원봉사 =년	회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납부	수납 : 현금 ()

우리 땅 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는 회원이 되기 위하여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가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귀하 (위의 발행인 주소로 보내세요.)

『1910년 韓日병합조약』 유효론과 獨島 領有權 문제 6편



려해연구소
RYEO HAE INSTITUTE
麗海研究所 김영구 교수의 해양법포럼

그러므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확인(確認)시킴으로써만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토권 주장은 근원적으로 배제(排除), 시정(是正)될 수 있다. 만일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적법, 유효한 것이라면, 시제법적 논리에 따라서 일제(日帝)의 한반도(독도 포함) 지배는 그 합법적 권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전함으로써 인해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배제되는 영토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1951년 대일강화조약에 의하면, 독도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배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형식 논리상 독도에 대한 일본식의 영유권 주장은 나름대로 법적 근거가 있게 된다. 그런데 만일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적법, 유효한 것이 아니라면, 일제의 한반도(독도 포함) 지배는 시제법적(時際法的) 논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법적 권원이 없다. 일제(日帝)의 한반도(독도 포함) 지배는 군사적 점령(belligerent occupation)일 뿐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 지배권을 배제시킬 때, 그 배제되는 영토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

독도는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당연히 독

도관련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일본의 지배가 배제된다. 그러므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독도는 한국 땅이다. 그러므로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무효라는 것이 한국과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 일반에서 확인되고, 일본의 한반도 지배가 시제법적 논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결국 불법적인 것이었음을 확인(確認)시킴으로써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토권 주장은 배제(排除), 시정(是正)될 수 있다. 이만큼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효력 문제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3. 한일간 過去史에 관한 일본 측 法的 認識의 변화 推移의 경과와 현황

2차 대전이 종결된 이후 한일간의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가 시작된 것은 1951년 「대일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이전인 1951년 10월부터인 바 그 때로부터 1965년 6월 「한일기본관계조약」이 성립되기까지 일본의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은 “일제의 한국병합은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며 따라서 일본의 한국 지배는 정당한 것이었다”는 주장 즉 『유효 정당론(有效 正當論)』에 입각한 것이었다.(다음호에 계속) **홍교수 논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도 이상훈>**

독도 지키기를 위한 제언 입력 2010-05-10(월)

일본의 독도 야욕에 맞서 한인들의 우리 땅 독도 알리기 활동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 편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 되고 있다. “이는 모두 일본의 독도 분쟁 지역화 의도에 도움이 될 뿐”이라고…… 그러면 일본은 오랜 동안 세계 각지에서 독도 역사를 왜곡 하고 있는 데 우리는 분쟁 지역화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가. 아니다.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이길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에게는 좋은 선례가 있다. 김치와 기무치의 싸움에서 우리의 김치가 보기 좋게 이겼다. 독도와 다케시마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역사적 진실이 우리 편이기 때문이다.

첫째, 독도 지키기 운동의 주체를 정해야 하겠다. 세계적인 조직을 갖춘 민주평통과 한민족여성 네트워크(KOWIN)가 주축이 되어 지역별로 범한인 조직(예를 들어 LA 독도수호위원회, OC 독도수호위원회)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대처했으면

한다.

또 역사적 증거들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 발굴해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말은 물론 주요 세계 각국어로 홍보 책자를 만들어야 하겠다.

한국 정부는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의 암초군위에 견실한 인공 주택지를 조성하여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어 실효 지배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지역 별로 모금을 하여 기금을 조성, 독도 지키기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 기금의 운영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 돈이 투명하지 않으면 단체가 힘을 잃는다. 기금 관리에 관한 엄격한 규정의 제정과 집행이 뒤따라야 하겠다.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반영구적으로 벌여 일본의 침략 야욕을 분쇄해야 한다. 국제 관계에서는 힘이 곧 정의이다.** 부도덕한 일본은 힘이 더 강해지고 기회만 되면 독도뿐 아니라 한반도를 다시 침략할 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만 선호해서야 되겠는가.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다. <이양구 / 전 OC한인회장>

영토를 빼앗기며 살아 온 우리민족

고구려 때는 중국의 절반 정도가 고구려 땅이 된 일도 있다. 조선시대에도 한반도보다 큰 간도 땅이 조선땅이었다. 이종무 장군이 대마도를 정벌해서 조선땅이다. 두만강 끝에 녹둔도가 조선땅이었다. 그런데 대마도는 일본에 녹둔도는 러시아에, 간도는 100년 전에 청일협약으로 중국땅이 되었다. 우리는 영토를 빼앗긴 역사가 있는데 지금도 지키려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 마음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 노력은 못 한다는 것, 지금 독도가 위험하다 바다는 공동 것 지도는 다케시마. 지키려고 노력하면 지켜진다. 독도주인은 노력하라.

<독도사수연합회 독도 이상훈>

日항의로 사흘 만에 사라진 시드니공항 독도 광고



호주 시드니 국제공항에 ‘독도는 한국 동해의 섬(Dokdo Island of Korea East Sea)’이란 영문 문구와 함께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가로 세로 6×4m 크기의 대형 독도 사진이 실린 이 광고는 당초 6주간 방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드니 주재 일본 총영사관이 이 독도 광고가 잘못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할 우려가 있다고 항의하여 설치됐던 독도 광고는 사흘 만에 갑자기 사라졌다.

현직 판사 독도 분쟁 소설 펴내(리)

◀ANC▶

현직 판사가 한국과 일본간에 벌어지는 가상의 독도 소송을 주제로 한 법정 소설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냉정한 대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형일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독도 인더 헤이그는 독도를 두고 한국과 일본간에 벌어지는 가상의 국제 재판을 소재로 현직 판사가 쓴 소설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한국과 일본의 한치의 양보없는 팽팽한 변론이 펼쳐집니다.

저자인 정재민 판사는 5년전 법무관 시절 독도 조약과 관련된 국제법 업무를 맡으면서 독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INT▶정재민 판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또 소설에서는 독도가 가야의 영토였다는 가정 아래 삼국유사에 소개된 가락국기 행방을 두고 일본과 한국이 치열한 공방을 펼쳐, 역사 추리적인 요소도 더해졌습니다.

특히 독도와 관련된 풍부한 역사적 기록들이 담겨져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던 독도의 실체를 소설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INT▶정재민 판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우리는 바라지 않지만, 만에 하나 독도가 국제 재판에 회부되는 날에 대비해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소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MBC 기자 김형일 날짜 2009-11-26>

IHO, 동해 표기 2017년 차기 총회로 연기



지난 4월 23일 개막한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의 동해 표기 결정이 오는 2017년 차기 총회로 연기됐다. 동해 표기의 국제표준 획득이 다시 무산된 것이다. 26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IHO 총회는 26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국제표준 해도집인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안(제4판)의 동해 표기 문제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2017년 차기 총회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의 동해, 일본해 병기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강력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유엔과 IHO의 규정에는 국가 간 지명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합의해 단일표기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병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총회에서도 한일 간 이견으로 S23 제4판 발간을 이번 총회로 미룬 바 있다.

<[머니투데이 2012-04-26] 문화일보 2012.4.26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외교부의 낯 뜨거운 '절반의 성공'論

이번 국제수로기구(IHO) 총회 결과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느냐? (K 기자).

“그렇다. 우리는 성공이라고 본다. 일본해 단독 표기를 막았다(외교부 당국자).”

국제수로기구(IHO) 동해표기관련 일지

1929년	IHO,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1판 발간, 일본해 단독표기
1937년	IHO, S-23 2판 발간, "
1953년	IHO, S-23 3판 발간, "
1992년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서 동해 표기 문제 첫 제기
1997년	IHO 15차 총회서 동해 병기 첫 공식 의제화
2007년	IHO 17차 총회서 동해 병기 실패
2012년 4월26일	IHO 18차 총회서 동해표기 개정 논의, 결론 없이 종결
2017년	IHO 19차 총회 예정

4월 26일 모나코에서 열린 IHO 총회가 국제 표준 해도집(海圖集) 개정을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의 일부다. 외교부는 “일본해 단독 표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이번 총회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라는 보도 자료도 배포했다.

이런 움직임에는 IHO 총회 결과가 우리 정부로서는 만족스럽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부의 다른

이어도를 중국은
자기 영토로 주장을 한다.
우리보다 중국이 훨씬
먼 어어도이다.



위는 이어도(물속에 섬) 해양과학기지

당국자들도 “이만하면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라며 호의적인 여론의 평가를 기대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집해 온 미국이 “한·일 양국이 합의해 보라”며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이 우선 눈에 띈다. 지면상 이후 생략 합니다. 보실 분 홈페이지에서 보시기바랍니다. <편집자>

4월11일 도쿄집회 개최



「다케시마문제 조기해결을 요구하는 도쿄집회(竹島問題の早期解決を求める東京集会)」가 도쿄도내에서 개최되어 2월 22일의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을 각의 결정하고 다케시마문제 조기해결을 도모할 것 등 6항목의 실시를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를 실시했습니다.

집회에는 정부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출석한 야마구치 츠요시(山口壯) 외무부장관과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총리보좌관, 각 정당대표 8명을 포함한 709명이 참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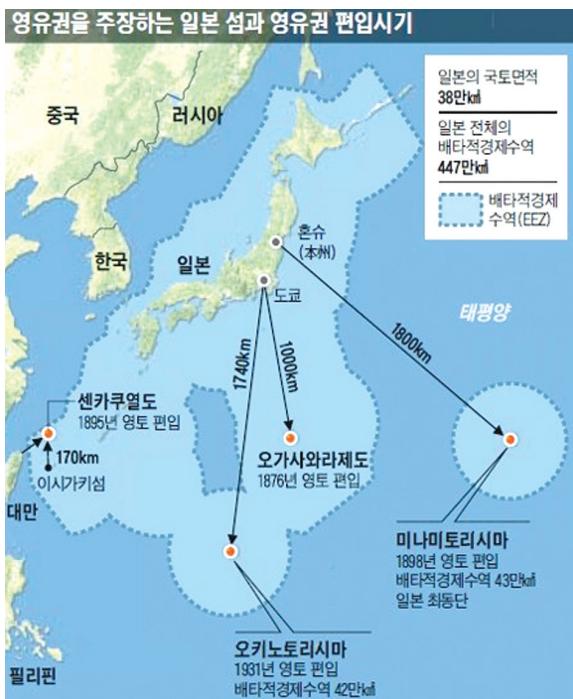
인사말은 한(시마네현)지사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이래 실시해 온 다케시마영토권확립을 위한 활동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기념할 만한 대회다.

시마네현은 더 많은 국민전체의 이해와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전력을 다해나가겠다. 「竹島の日」制定以来行ってきた竹島領土権確立の活動が新たな段階に入った記念すべき大会。島根県としては「さらに国民全体の理解と支援が得られるよう」皆様とともに全力を挙げていく」と 말했다.

시마네현 홈페이지 2011.4.
독도본부 www.dokdocenter.org

120년 전부터 곳곳에 말뚝 엄청 박은 일본 '완전 대박'

19세기 말 한국이 쇠국이나 개국이나로 논쟁을 벌일 때 일본은 필사적으로 무인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시켰다. 독도도 영토 확장하려 한다.



자세한것은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대에 있음.

독도사수연합회 후원사

신우정공

대표 신재식(용기)
HL5 JQN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311-4
TEL : (051) 528-8839
FAX : (051) 528-8861
H.P : 011-558-4198
E-mail : sw8818@chol.com

- 사출금형
- 특수금형
- 다이캐스팅
- 금형설계
- 건축자재
- 황마론 난간대
- 베란다
- 계단, 핸드레일 관련부품



나라사랑

1. 독도모형
 2. 저금통기능
 3. 향수통기능
- “독도사랑저금통”
검색하시면 됩니다
010-9901-2853

OORI PATENT

대표 변리사 조철현

우리 특허 법률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23 여삼빌딩13층
Tel.(02)556-3453 Fax.(02)557-3038
E-mail : cho@oori.co.kr

samsungbio



보온물통과 가방
055-366-2032



보냉가방

독도소식지 9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독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나라가 없으면 국민은 없고 민족만 있을 뿐입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윤예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후원 하실 분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